

18.06.25(월)~18.06.29(금)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326	1,445,165	1.0	9.5	11.5	-1.3	-5.3	-4.5	-5.7	-5.7	103	-399	-29	1,767	9,395
KOSDAQ	818	158,872	2.5	18.3	14.3	-1.5	-6.0	-5.5	2.5	2.5	22	76	59	456	2,571
보험	17,805	20,484	0.6	10.8	6.1	-2.3	-3.2	-9.9	-15.8	-15.8	5	-34	5	25	160
증권	1,933	20,167	0.8	9.0	9.5	-0.9	-12.4	-6.2	-2.7	-2.7	0	-16	8	19	151
삼성생명	98,400	19,680	0.6	8.2	7.4	-2.1	-7.6	-14.8	-21.0	-21.0	-4	-6	-1	7	49
한화생명	5,300	4,603	0.5	8.1	6.4	-4.2	-9.6	-15.6	-23.3	-23.3	-2	-3	-1	1	13
ING생명	41,850	3,432	0.9	9.8	9.7	-2.2	10.0	-6.3	-21.6	-21.6	-0	-2	0	2	13
동양생명	7,390	1,192	0.5	8.0	6.1	-1.1	1.7	0.0	-2.8	-2.8	0	-0	0	0	4
삼성화재	264,000	12,507	1.0	10.6	9.7	-0.4	3.5	-1.5	-1.1	-1.1	5	-1	8	6	33
DB손해보험	59,000	4,177	0.8	6.0	13.7	-2.6	0.0	-10.6	-17.1	-17.1	6	-9	0	3	20
현대해상	33,700	3,013	0.8	5.7	15.4	-7.4	-3.7	-14.1	-28.3	-28.3	-3	-5	-2	2	16
메리츠화재	19,200	2,118	1.1	6.3	18.7	-4.0	-4.0	-9.2	-18.3	-18.3	-0	-4	-1	2	6
한화손해보험	6,530	762	0.6	4.9	13.3	-6.4	-6.8	-22.3	-19.8	-19.8	1	-2	-0	0	2
삼성증권	34,750	3,103	0.6	7.0	9.6	0.3	-7.5	-11.6	-5.1	-5.1	6	-2	5	2	21
미래에셋대우	8,520	5,609	0.7	8.4	9.0	-0.5	-13.2	-7.5	-7.3	-7.3	-4	-5	-0	6	49
NH투자증권	14,950	4,207	0.9	9.3	9.7	0.0	-11.5	7.2	7.6	7.6	-2	2	2	4	35
한국금융지주	84,100	4,687	1.1	7.8	15.2	0.6	-14.3	1.8	21.9	21.9	-7	8	-1	8	44
키움증권	108,500	2,398	1.3	8.3	17.9	1.4	-14.6	1.9	23.9	23.9	11	-10	4	2	20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약세 시현: 보험업종 주가 하락의 이유는 판매비를 통한 신계약 판매 경쟁이 2분기에 안정화되었지만 메리츠화재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3분기 이후 다시금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에 대한 우려(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임</p> <p>▶ 자동차 정비요금 협상 8년만에 타결... 車보험료 2%대 인상 전망: 국토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을 8년만에 공표하였음. 시간당 공임은 25,383원~34,385원이며 연평균상승률은 2.9%로 결정. 공표요금은 구속성이 없어 정확한 예측 어렵지만 보험개발원은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할 것으로 전망</p> <p>▶ 금감원, 내달 빅5 손보사 사업비 일제 점검: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대형 손보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인센티브를 포함한 장기보험 사업비에 대해 실태 조사하겠다고 통보하였음</p> <p>▶ 한화생명·손보, 런던 오피스빌딩 매각해 760억 차익 시현</p>
증권	<p>증권업종 강세 시현: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최근 크게 하락한 주가로 인하여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판단됨. 또한 금리 하락 및 환율 상승으로 채권평가손익 부담 축소와 ELS 헷지를 위하여 해외 거래소의 예치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평가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의 하방경직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됨</p> <p>▶ 회계기준 변경으로 증권사, 보험사 손익변동 확대: 금감원, 새 회계기준 영향 분석결과 증권, 보험사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나 손익변동성 커질 전망. 그동안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됐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영향임</p> <p>▶ 증권사 NCR에 적용되는 부동산펀드 위험액 상향: 금감원은 6월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증권사 NCR에 적용하는 부동산펀드 위험액 산정비율을 24%에서 60%로 상향하였음.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대출(만기 1년 이상)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비율이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되었음.</p>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MoM	Quarterly					QoQ
			18.01	18.02	18.03	18.04	18.05		2Q17	3Q17	4Q17	1Q18	2Q18 누계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KOSPI+KOSDAQ	10.0	10.5	15.8	13.0	12.4	14.3	15.0	12.4	8.9	8.2	11.8	13.8	13.9	0.9
KOSPI	6.3	17.1	7.1	6.9	6.9	7.8	9.1	7.5	5.6	5.2	6.0	7.0	8.1	16.7
KOSDAQ	3.7	0.9	8.7	6.2	5.5	6.5	5.9	4.9	3.2	3.0	5.8	6.8	5.8	-15.2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KOSPI+KOSDAQ	11.9	20.5	11.2	11.2	11.3	12.2	12.5	11.9	8.5	8.3	9.8	11.3	11.9	4.8
KOSPI	6.0	34.5	4.8	5.3	5.4	6.0	6.2	6.0	4.1	4.0	4.5	5.4	6.0	11.6
KOSDAQ	5.9	8.8	6.5	5.9	5.9	6.2	6.3	5.9	4.4	4.3	5.4	5.9	5.9	-1.3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1년	1.85	2.6	1.84	1.84	1.89	1.85	1.85	1.85	1.47	1.53	1.85	1.89	1.85	-4.3
3년	2.12	0.7	2.27	2.27	2.22	2.22	2.20	2.12	1.70	1.89	2.13	2.22	2.12	-9.5
5년	2.35	1.6	2.57	2.52	2.43	2.49	2.48	2.35	1.90	2.08	2.35	2.43	2.35	-7.4
10년	2.56	6.3	2.77	2.74	2.62	2.72	2.70	2.56	2.21	2.37	2.47	2.62	2.56	-6.7
약정 MS	%	17년대비, %p											%	%p
삼성증권	5.7	-0.2	6.5	5.8	6.2	6.4	6.1	6.0	5.9	6.2	6.0	6.2	6.2	-0.1
미래에셋대우	12.1	-0.5	13.6	13.2	13.1	13.2	12.8	12.3	12.5	12.7	13.2	13.3	12.8	-0.5
NH투자증권	6.3	0.3	6.4	6.1	6.3	6.4	6.4	6.4	5.9	5.7	6.4	6.3	6.4	0.1
한국금융지주	5.3	-0.5	5.9	5.5	5.5	5.5	5.2	5.1	5.7	6.1	5.8	5.7	5.3	-0.4
키움증권	16.7	0.2	17.7	17.5	17.1	18.5	18.2	18.0	16.0	15.3	17.4	17.5	18.2	0.8

자료: KOFIA, Check, KRX

4. 급주 전망

보험	<p>전주 금요일 한화손보가 5월 실적 발표를 하였음. 4월 대비 투자수익률이 0.5%p 하락하였지만 순이익은 19.8% 증가한 178억원을 시현하였음. 이는 한산비율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함</p> <p>5월 인담보 신계약은 50억원으로 4월 51억원대비 소폭 감소(전년동월대비 37.2% 증가)하였지만 사업비율은 1.7%p 하락하였고 장기보험 손해율 개선을 통해 전체 손해율이 0.9%p 개선되었음.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1) 신계약 판매 호조가 2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지만 시책(추가 판매비) 경쟁은 1분기대비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 2) 2분기에도 지난해 매우 낮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전년동기대비 부담은 존재하지만 3) 장기보험의 손해율 개선을 통해 상쇄되고 있다는 것임.</p> <p>따라서 2분기 손보사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에 최악의 시점이 지나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시책 경쟁에 대한 우려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p>자동차보험의 정비수가 타결의 영향은 우선 1) 공표된 시간당 공임 범위에서 각 보험사는 개별 정비소와 가격 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2) 이를 기준(정비소마다 다름)으로 4분기에 정비요금 인상이 시행됨. 3) 원가 상승 부분은 보험료에 반영하여 4분기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하게 됨. 우선 정비요금 인상은 시행 즉시 원가에 반영되는 반면 매출에는 2년에 걸쳐 반영되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게 됨. 초기에는 손해율 상승요인 이후에는 손해율 하락(전년동기대비)요인으로 작용함.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및 보험료 인상률은 아직 단정적으로 언급할 수 없음</p> <p>그 이유는 보험사와 개별 정비소의 협상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임.</p> <p>현재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고 있으며 금주 초 남부지방이 영향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주 초반 손해율에 대한 우려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p>
증권	<p>전주 일평균거래대금은 9.9조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신용잔고 역시 5월대비 4.9% 감소하였음.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많은 거래대금을 수반하였던 바이오/대북관련/삼성전자 액분 효과 등이 제거되었기 때문임. 주요국 지수, 특히 중국의 주가지수 하락은 ELS 조기상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p> <p>따라서 시장 변수에 의해 크게 개선되었던 수익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상황임. 2분기 거래대금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신용관련 이자수지의 증가로 인하여 Broker age관련 이익은 전분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LS 조기상환 역시 1분기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이로 인하여 우리가 3분기로 언급하였던 peak out 시점이 2분기로 당겨지고 있음</p> <p>다만 최근의 주가 흐름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는 2분기 실적보다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속도로 해소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p> <p>이는 반대로 2분기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p>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7월 2일	중국	6월 Caixin 제조업 PMI	51.1	51.0
7월 2일	미국	6월 ISM 제조업 PMI	58.7	58.3
7월 5일	미국	6월 ADP 비농업부문 고용변화	천명	178
				180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06/25 (월) ▶ 금감원, 내달 '빅5 손보사' 설계사 인센티브 일제 점검 (한경)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험회 및 각 손보사에 설계사 인센티브를 비롯한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통보</p> <p>▶ "중부세 걱정 없어"...부동산펀드 완판행진 (서울경제) 세금부담에 부동산대신 펀드 선택...시세차익보다 안정수익 노려</p> <p>▶ [하반기 건설금융 전망]포트폴리오 다변화 된 부동산 PF, 증권사간 치열한 경쟁 예고 (건설) 지난해말까지 주택 PF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수익형 부동산, 물류센터 등으로 급변, PF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라 대형사 간 혹은 대형, 중형사 간 우량 계약(딜)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p> <p>▶ 실손보상 손해보험 가입전 중복가입 확인, 12월부터 '가능'</p> <p>▶ NH識, 美 발전소에 2600억 투자 (한경) 미국 오하이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우스필드 에너지 프로젝트'의 대표 주관을 맡아 약 2600억원 투자. 차후 기관투자가 대상 셀다운 예정. 지분 투자도 3500만달러(약 380억원) 규모 참여.</p> <p>▶ 메리츠화재, 다태아 전용보험 내달 출시...현대해상 '맹추격' (대한금융신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태아에 대한 인수기준을 낮추고 각종 제출서류도 간소화한 상품 출시</p>
	<p>06/26 (화) ▶ 부동산 공돌인 증권사 새 NCR에 '악' (아주경제) 금감원, 금융투자업경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증권사 NCR에 적용하는 부동산펀드 위험액 산정비율을 24%에서 60%로 상향.</p> <p>▶ 한국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내달 공식 출범 (머니투데이) 자기자본금 483억원 증권사로 시작...현지 증권업계 탑10 조기 진입 목표</p> <p>▶ NH투자識, 여의도 '지하 삼각벨트' 잇는다...IFC·파크원·MBC 연결 (아시아투데이)</p>
	<p>06/27 (수) ▶ 동양생명·ABL 대주주 '안방보험 경영권' 중정부로 (EBN) 중국 정부 안방보험 오너십 취득 완료...CIRC '정관 변경 승인'. 금감원 "정부 관리 아래 안방보험 경영구조 투명해질 수 있어"</p> <p>▶ 한화손보·SKT, 단종보험사 설립한다.. '운전습관 연계 상품' 론칭 (이데일리) 한화손보, SKT가 인슈어테크 적용한 단종보험사 설립에 나서. 운전자 습관 반영해 보험료 차등 적용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시작해 빅데이터를 이용해 여행자보험 휴대폰보험 등으로 영역 확대할 계획</p>
	<p>06/28 (목) ▶ 한화생명·손보, 런던 오피스빌딩 팔아 760억 차익 (한경) 한화생명/손보, 영국 런던에 있는 오피스 빌딩 '플레이커 플레이스'를 매각해 760억원가량의 매각 차익 실현</p> <p>▶ [인프라로 영역 넓히는 금융투자] 투자 야성 키운 증권사...자금주선서 탈피 '개발사업 설계자'로 (서울경제) 증권사 '新 수익모델' 인프라 사업. 해외 신도시 복합개발부터 GTX건설·역세권 재개발까지 초기 단계부터 직접 뛰어 들어 유동성 적극 활용 수익률 극대화</p> <p>▶ 윤종규 KB금융 회장 "ING생명 인수 구체적 진전 사안 없다" (서울경제) 몸푸는 윤 회장...다음달 2일부터 해외 IR. ING생명 인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p>
	<p>06/29 (금) ▶ 회계기준 변경으로 증권·보험사 손익변동 확대.. '감독 강화' 금감원, 새 회계기준 영향 분석결과 증권, 보험사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나 손익변동성 커질 전망. 그동안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됐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영향</p> <p>▶ 삼성화재, 후보험료 인하했지만 점유율 역주행 (뉴스핌) 4월 자보로 인하에도 불구 5월 삼성화재 자보 점유율은 28.7%로 전월대비 0.8%p 하락.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느끼기에 보험료 인하 폭이 크지 않은 탓으로 분석</p> <p>▶ 키움증권 M&A펀드, 잇따른 인수금융 투자 (더벨) 키움증권 M&A 펀드, 제이에스글로벌·원하이텍 M&A에 전략적 투자, 반년만에 펀드 소진 36% 달성</p> <p>▶ 미래에셋대우-NH識, 런던 오피스 1130억 메리츠에 재매각 (머니투데이) 미래대우, NH가 공동 인수한 펀드 1730억원 중 1130억원을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에 셀다운해 유동성 확보</p> <p>▶ 미래에셋대우, 미국법인 '미래에셋 시큐리티 홀딩스'에 3821억 출자 (머니투데이)</p> <p>▶ ING생명, 사명 변경키로...8월 임시주총서 안건 상정 (인베스트조선)</p>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326		1.0	9.5	11.5	3.1	-1.3	-5.3	-4.5	-5.7	-5.7
	보험	17,805		0.6	10.8	6.1	0.6	-2.3	-3.2	-9.9	-15.8	-15.8
	삼성생명	98,400	17.7	0.6	8.2	7.4	0.8	-2.1	-7.6	-14.8	-21.0	-21.0
	한화생명	5,300	4.1	0.5	8.1	6.4	0.4	-4.2	-9.6	-15.6	-23.3	-23.3
	ING생명	41,850	3.1	0.9	9.8	9.7	1.1	-2.2	10.0	-6.3	-21.6	-21.6
	동양생명	7,390	1.1	0.5	8.0	6.1	0.5	-1.1	1.7	0.0	-2.8	-2.8
	삼성화재	264,000	11.2	1.0	10.6	9.7	1.5	-0.4	3.5	-1.5	-1.1	-1.1
	DB손해보험	59,000	3.8	0.8	6.0	13.7	1.3	-2.6	0.0	-10.6	-17.1	-17.1
	현대해상	33,700	2.7	0.8	5.7	15.4	1.2	-7.4	-3.7	-14.1	-28.3	-28.3
	메리츠화재	19,200	1.9	1.1	6.3	18.7	1.8	-4.0	-4.0	-9.2	-18.3	-18.3
	한화손해보험	6,530	0.7	0.6	4.9	13.3	1.1	-6.4	-6.8	-22.3	-19.8	-19.8
	증권	1,933		0.8	9.0	9.5	1.0	-0.9	-12.4	-6.2	-2.7	-2.7
	삼성증권	34,750	2.8	0.6	7.0	9.6	1.1	0.3	-7.5	-11.6	-5.1	-5.1
	미래에셋대우	8,520	5.0	0.7	8.4	9.0	0.8	-0.5	-13.2	-7.5	-7.3	-7.3
	NH투자증권	14,950	3.8	0.9	9.3	9.7	1.1	0.0	-11.5	7.2	7.6	7.6
	한국금융지주	84,100	4.2	1.1	7.8	15.2	1.2	0.6	-14.3	1.8	21.9	21.9
	키움증권	108,500	2.2	1.3	8.3	17.9	2.6	1.4	-14.6	1.9	23.9	23.9
일본	Nikkei225	22,305		1.7	16.2	10.2	2.0	-0.9	0.6	4.3	-2.0	-2.0
	보험	1,001		0.8	10.5	7.0	0.7	-1.0	-2.6	4.5	-5.5	-5.5
	Dai-ichi Life Holdings	4,237	27.1	2.4	49.4	4.7	2.6	-1.8	21.2	20.2	44.3	44.3
	Japan Post Insurance	2,278	12.3	0.7	14.9	4.6	0.1	-2.1	-6.0	-8.7	-14.0	-14.0
	Tokio Marine Holdings	5,193	35.1	1.0	14.2	7.3	1.1	-2.6	-0.9	9.7	1.0	1.0
	증권	396		0.8	9.4	8.4	0.6	0.1	-3.1	-3.9	-9.0	-9.0
	Nomura Holdings	538	17.7	0.7	7.5	9.0	0.6	-0.0	-4.6	-12.5	-19.1	-19.1
	Daiwa Securities	643	9.9	0.8	9.9	8.6	0.6	3.8	1.8	-5.2	-9.0	-9.0
	SBI Holdings	2,854	5.8	1.4	12.4	11.9	1.2	-3.2	-4.0	17.3	21.1	21.1
	Hang Seng	28,955		1.3	11.5	12.8	1.1	-1.3	-5.0	-3.8	-5.1	-3.2
중국/홍콩	상해A주 지수	2,982		1.3	11.3	12.1	1.2	-1.5	-7.4	-10.0	-15.0	-13.9
	보험	148		1.2	10.8	11.3	1.9	-4.6	-6.7	-7.0	-20.1	-17.9
	China Life	20	90.0	1.3	11.2	12.7	1.5	-2.9	-7.5	-6.3	-17.5	-17.5
	Ping An Insurance	72	164.4	2.0	11.1	19.5	1.6	-4.6	-5.8	-9.2	-11.0	-11.0
	AIA	69	105.6	2.3	18.4	13.0	2.6	0.0	-4.7	3.3	2.9	2.9
	증권	95		1.1	15.0	7.9	51.8	0.5	-12.3	-20.9	-25.4	-24.3
	CTIC Securities	16	29.2	1.0	12.5	8.5	2.0	-4.9	-20.7	-12.7	-2.7	-2.7
	Haitong Securities	8	15.0	0.6	8.3	7.7	1.8	-4.9	-19.2	-23.6	-30.1	-30.1
	Huatai Securities	12	15.0	0.8	9.4	8.7	2.0	-4.4	-19.3	-17.4	-19.8	-19.8
	S&P500	2,718		3.1	17.1	18.5	3.6	-1.3	-0.6	5.3	0.8	1.7
미국	보험	369		1.2	11.3	11.2	#N/A	-1.8	-3.2	-3.4	-7.0	-8.2
	AIG	53	47.6	0.7	10.9	6.8	0.9	-2.6	0.4	-2.6	-11.0	-11.0
	Metlife	44	44.3	0.9	8.5	10.6	0.7	-4.6	-5.2	-5.0	-13.8	-13.8
	Prudential Financial	94	39.3	0.8	7.6	11.9	0.6	-3.1	-3.4	-9.7	-18.7	-18.7
	증권	200		2.1	14.7	12.7	1.3	-3.7	-3.9	-0.5	-0.8	-1.3
	JP Morgan	104	354.8	1.5	11.7	13.4	1.2	-1.5	-2.6	-5.2	-2.6	-2.6
	Goldman Sachs	221	86.5	1.1	9.6	12.1	1.0	-2.4	-2.4	-12.4	-13.4	-13.4
	Charles Schwab	51	68.9	3.7	21.1	19.2	1.3	-6.9	-8.1	-2.1	-0.5	-0.5
	MSCI Europe	128		1.7	14.3	10.0	1.0	-1.3	-1.8	2.4	-2.3	-2.5
	보험	73		1.1	10.5	12.3	0.5	-1.5	-3.1	-3.8	-5.1	-5.4
유럽	Allianz	177	88.9	1.1	10.2	11.4	0.9	0.7	0.4	-3.5	-7.6	-7.6
	AXA	21	59.5	0.7	8.3	9.0	0.6	-1.9	-1.5	-2.7	-15.0	-15.0
	Prudential plc	1,735	59.3	2.5	12.5	21.5	0.5	-4.4	-4.2	-2.5	-9.0	-9.0
	Munich Re	181	31.6	1.0	10.7	9.1	1.0	0.7	2.7	-4.1	0.2	0.2
	증권	71		1.1	14.4	6.7	0.5	-1.4	-1.4	-3.9	-10.1	-10.1
	UBS	15	59.1	1.1	11.1	9.4	0.5	-1.6	0.8	-9.6	-13.2	-13.2
	Credit Suisse	15	38.5	0.9	12.6	7.0	0.4	-2.8	-0.5	-5.1	-12.8	-12.8
	Deutsche Bank	9	22.3	0.3	20.5	1.4	0.3	-2.9	0.7	-18.6	-41.9	-41.9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46	1,844	1,850	1,889	1,853	1,853	0.2	-0.4	-4.3	-0.7	-0.7
		3 Year	2.122	2,147	2,187	2,220	2,134	2,134	-2.5	-6.5	-9.8	-1.2	-1.2
		5 Year	2.351	2,402	2,480	2,435	2,347	2,347	-5.1	-12.9	-8.4	0.4	0.4
		10 Year	2.555	2,613	2,687	2,638	2,467	2,467	-5.8	-13.2	-8.3	8.8	8.8
일본	국고채	1 Year	-0.121	-0.131	-0.136	-0.132	-0.145	-0.145	1.0	1.5	1.1	2.4	2.4
		10 Year	0.036	0.035	0.034	0.040	0.048	0.048	0.1	0.2	-0.4	-1.2	-1.2
중국	국고채	1 Year	3.160	3,278	3,167	3,345	3,834	3,834	-11.8	-0.7	-18.5	-67.4	-67.4
		10 Year	3.479	3,586	3,630	3,766	3,902	3,902	-10.7	-15.1	-28.7	-42.3	-42.3
미국	국고채	1 Year	2.312	2,321	2,163	2,082	1,732	1,732	-0.9	14.9	23.0	58.0	58.0
		10 Year	2.860	2,895	2,781	2,739	2,405	2,405	-3.5	7.9	12.1	45.5	45.5
유럽	국고채	1 Year	-0.549	-0.587	-0.568	-0.565	-0.611	-0.611	3.8	1.9	1.6	6.2	6.2
		10 Year	0.302	0.337	0.260	0.497	0.427	0.427	-3.5	4.2	-19.5	-12.5	-12.5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